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미 증시, 종전 기대감 속 반도체주 급등 효과로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6일(화) 미국 증시에서는 미-이란 종전 기대감, 5월 컨퍼런스 소비자신뢰지수 개선, 미 10년물 금리 4.5%대 하회 등 양호한 대외여건 속 마이크론(+19.3%)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 급등 효과에 힘입어 S&P500과 나스닥은 신고가 경신(다우는 소폭 하락, 다우 -0.2%, S&P500 +0.6%, 나스닥 +1.2%).

주말 중 미-이란 60일 휴전안 체결 가능성 등 종전 낙관론이 부상한 상황 속에서도, 양국간 마찰에 따른 노이즈도 생성되고 있는 상황. 전일 국제 유가가 장중 낙폭을 축소한 것 역시 자위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이란 남부 기지 공습, 이스라엘 총리의 레바논 공격 의지 지속 등의 소식이 전해진 데서 기인.

다만, 주식시장이 협상 진전과 마찰의 반복 경험 과정에서 전쟁의 역치가 높아졌다는 전제도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UBS가 LTA(장기 공급 계약)로 메모리 사이클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마이크론의 목표주가를 약 200% 상향(535 달러 → 1,625달러)하는 등 주도주인 반도체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외부 충격을 완충시키고 있는 요인.

물론 이들 랠리 과정에서 FOMO발 투기 수요 가세했던 만큼, 협상 노이즈가 단기 조정 압력을 가할 여지는 존재(5월 이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2.6%, 코스피 반도체 업종 +44.9%, 코스피 +22.0%). 그렇지만 주요국 증시는 반도체, MLCC 등 AI 밸류체인주를 중심으로 이익 모멘텀과 내러티브가 유지되고 있으며, 전쟁 리스크의 피크아웃 인식도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 시, 추후 출현할 수 있는 숨고르기 과정에서 차익실현 강도를 높이는 것은 후순위로 둘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주말 중 미-이란 60일 휴전 연장안 체결 가능성에 따른 유가 약세, 미 10년물 금리 4.5%대 하회 등에 힘입어 반도체, IT하드웨어와 같은 주도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코스피 +2.6%, 코스닥 +1.0%).

금일에는 협상 낙관론 vs 회의론 공존에도, 금리 급등세 진정 속 미국 반도체주 강세, 코스피 야간선물 4.2%대 급등 소식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 수급 이벤트에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

전일 코스피는 장중 차익실현 압력을 소화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8,000pt대 진입. 당사가 하반기 전망을 통해 코스피 상단을 10,000pt로 제시했듯이, 여전히 실적 장세가 진행중인 만큼 지수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 하지만 주중 남은 기간 동안 변동성 이벤트를 치러야 하는 단기적인 과제가 대기 중인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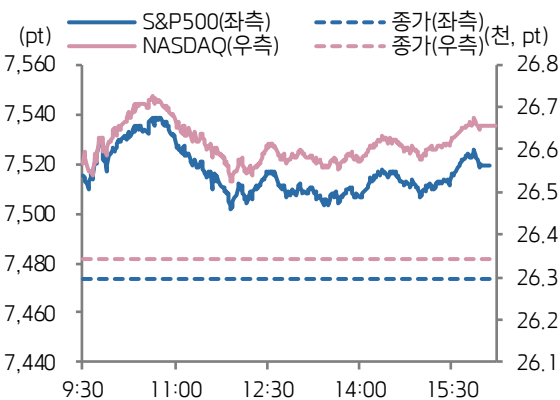
오늘 예정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이 일시적인 변동성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 21일까지 레버리지 ETF 교육 신규 신청자 및 기이수자 합산 인원은 약 20만명을 상회하기에, 증시에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홍콩에 상장된 CSOP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에 유입된 한국 투자자들의 수급 이동 효과도 포함). 또한 전일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등 반도체주 폭등을 감안 시, 금일 역방향보다 정방향 레버리지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임.

여기서 현재 코스피가 연 이은 고점 경신과 급등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수 변동성이 높아진 점도 고려할 필요. 코스피200의 변동성 지수인 VKOSPI는 5월 평균 68pt대로 연초 이후 평균(52pt), 2010년 이후 평균(20pt)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5월 이후 일평균 주가 변동률이 +/- 5~6%대로 증가한 점도 마찬가지.

물론 이들 합산 시가총액이 3,100조원(삼성전자 1,700조원대, SK하이닉스 1,400조원대)에 달하는 만큼, 단일종목 레버리지(약 순자산 4조원대 이상으로 추정)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기는 함. 정방향 이외에도 역방향 레버리지 상품을 통한 헤지 수요 발생, 차익거래자들의 시장 조성자 수행 등이 일간 리밸런싱발 수급 충격을 제한시키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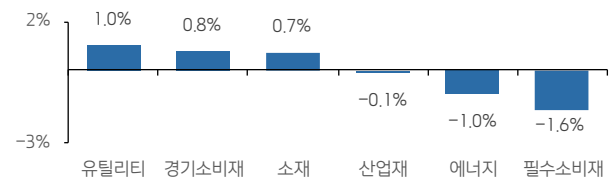
하지만 현재 주도주이자 개인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인 만큼 출시 직후 수급 쓸림 증폭 현상이 발생할 시,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로 갈수록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따라서, 이 같은 레버리지 ETF발 증시 변동성에 일일이 매매 대응하는 손익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대응 전략에 반영해 놓는 것이 적절.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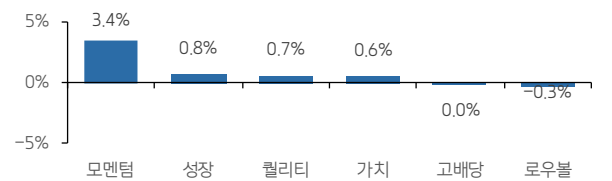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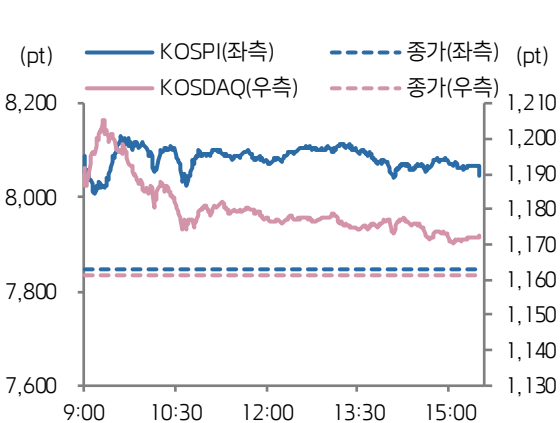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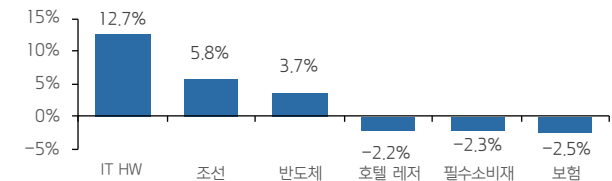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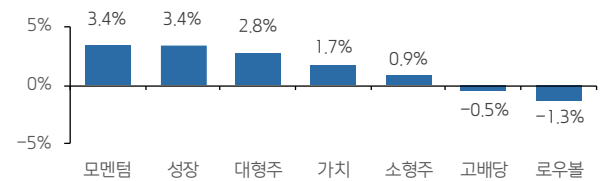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308.33	-0.16%	+13.41%	GM	79.79	+1.27%	-1.88%
마이크로소프트	416.03	-0.61%	-13.98%	일라이릴리	1,064.74	-0.02%	-0.92%
알파벳	388.88	+1.54%	+24.24%	월마트	118.57	-1.41%	+6.43%
메타	612.34	+0.34%	-7.23%	JP모건	306.74	+0.12%	-4.8%
아마존	265.29	-0.39%	+14.93%	엑손모빌	149.81	-3.3%	+24.49%
테슬라	433.59	+1.78%	-3.59%	세브론	184.71	-3.51%	+21.19%
엔비디아	214.86	-0.22%	+15.21%	제너럴일렉트릭	118.57	-1.4%	+6.4%
브로드컴	422.01	+1.9%	+21.93%	캐터필러	908.55	+3.26%	+58.6%
AMD	503.89	+7.78%	+135.29%	보잉	218.90	-0.05%	+0.82%
마이크론	895.88	+19.29%	+213.89%	넥스트에라	87.65	-1%	+9.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8,047.51	+2.55%	+90.96%	USD/KRW	1,507.20	-0.69%	+4.7%	
코스피200	1,260.53	+2.81%	+108.02%	달러 지수	99.15	-0.09%	+0.84%	
코스닥	1,172.52	+0.98%	+26.69%	EUR/USD	1.16	-0.11%	-0.98%	
코스닥150	2,015.41	+1.18%	+30.25%	USD/CNH	6.79	+0.01%	-2.73%	
S&P500	7,519.12	+0.61%	+9.84%	USD/JPY	159.30	+0.25%	+1.65%	
NASDAQ	26,656.18	+1.19%	+14.69%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50,461.68	-0.23%	+4.99%	국고채 3년	3.664	-6.1bp	+71.3bp	
VIX	17.01	+2.53%	+13.78%	국고채 10년	4.075	-5.1bp	+69bp	
러셀2000	2,920.54	+1.79%	+17.67%	미국 국채 2년	4.032	-8.9bp	+55.9bp	
필라. 반도체	12,876.91	+5.53%	+81.8%	미국 국채 10년	4.485	-7.3bp	+31.8bp	
다우 운송	21,209.25	+2.13%	+22.19%	미국 국채 30년	5.018	-4.6bp	+17.4bp	
상해종합	4,145.37	-0.17%	+4.45%	독일 국채 10년	2.979	+3.3bp	+12.4bp	
항생 H	8,576.89	+0.3%	-3.78%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6,009.70	-0.63%	-10.81%	WTI	93.89	-2.81%	+64.6%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99.58	+3.58%	+63.65%
Eurostoxx50	6,064.15	-1.18%	+4.71%	금	4,535.00	-0.47%	+2.13%	
MSCI 전세계 지수	1,121.42	+0.29%	+10.53%	은	76.31	+0.54%	+8.08%	
MSCI DM 지수	4,831.20	+0.26%	+9.05%	구리	636.10	+0.3%	+11.95%	
MSCI EM 지수	1,720.41	+0.53%	+22.5%	BDI	2,991.00	+0.91%	+59.35%	
MSCI 한국 ETF	200.65	+10.23%	+106.39%	옥수수	457.50	-1.24%	+0.66%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635.50	-1.66%	+19.62%
비트코인	76,001.04	-1.57%	-13.29%	대두	1,186.00	-0.88%	+10.4%	
이더리움	2,075.80	-1.49%	-30.29%	커피	274.00	+0.61%	-15.9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5월 2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